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한·뉴질랜드 FTA가 협상 개시 5년만에 '14.11.15일 타결되었다. 뉴질랜드는 1차 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상되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가 전망된다. 특히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산업 및 첨단 기술 분야 등의 협력을 통해 수출 뿐 아니라 기술, 인력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한·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09.6월 협상을 시작하여 5년 만인 '14.11.15일에 타결되었음
- '10.5월까지 4차례의 공식협상 후 상품분야에서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3.12월 협상을 재개하여 총 9차례의 공식협상 및 실무회의를 통해 타결

【한·뉴질랜드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6.12월	한·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7.2-2008.4월	한·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 회의(총 4회) 및 공동연구완료('08.4)
2008.5.16	한·뉴질랜드 FTA 예비협약 개최 합의
2008.9-11월	제1, 2차 한·뉴질랜드 FTA 예비협약
2009.1.16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2009.03.03	한·뉴질랜드 FTA 개시 합의
2009.6-2010.5월	한·뉴질랜드 FTA 제1-4차 협상 협상 개최
2013.12.3	한·뉴질랜드 FTA 협상 재개 합의(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계기)
2014.2-10월	한·뉴질랜드 FTA 제5-9차 협상 협상 개최
2014.11.15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www.fta.go.kr)

2 한·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현황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40위 교역국('14.1-9월 기준)으로 對뉴질랜드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6%, 수입은 연평균 4.5% 증가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40위 수출·수입 상대국('14.1-9월 기준)

- 뉴질랜드와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앞서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임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뉴질랜드와의 교역에서 자원 및 농축산물 수입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지만, '12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 수출이 연평균 54.6% 증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

* 對뉴질랜드 무역수지는 1980년 이래로 2009년(12백만 달러 흑자)을 제외하고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흑자로 전환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9월	5년간 연평균증가율
수출	825 (18.0)	891 (8.0)	918 (3.1)	1,104 (20.2)	1,465 (32.7)	1,491 (1.7)	1,349 (33.6)	12.6
수입	1,122 (-4.2)	879 (-21.6)	1,176 (33.7)	1,474 (25.4)	1,339 (-9.2)	1,395 (4.2)	1,168 (10.9)	4.5
교역	1,946 (4.1)	1,770 (-9.1)	2,094 (18.3)	2,578 (23.1)	2,804 (8.8)	2,886 (2.9)	2,517 (22.0)	8.2
수지	-297	12	-258	-370	126	96	181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제 7위 수입국으로 2009년부터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3%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8위를 유지했으나, 금년 들어 4.5%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7위로 상승

【뉴질랜드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

(단위 :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1-9월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6.2	4	10.8	16.0	15.9	16.3	17.1	1	16.4	1
호주	22.4	1	20.9	18.4	15.8	15.3	13.4	2	12.1	2
미국	17.4	2	11.0	10.4	10.7	9.2	9.3	3	11.7	3
일본	11.1	3	10.7	7.2	6.1	6.3	6.2	4	6.5	4
독일	4.2	5	4.9	4.1	4.3	4.4	4.6	5	4.9	5
한국	2.2	10	2.8	3.3	3.1	3.8	4.1	8	4.5	7

주 : 순위는 2014.1-9월 기준

□ 양국의 교역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로부터 원자재 및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출 품목은 휘발유(비중 29.9%), 경유(17.8%), 승용차(15.0%) 등이며, 상위 3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의 59.7%를 차지하는 구조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주요 수입 품목은 원목, 기타석유제품 등의 원자재(44.5%)와 낙농품(9.0%), 가축육류(8.4%) 등 식품에 대한 수입이 높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인 목재의 경우 對세계 수입 수요의 47.5%, 메탄올의 경우 53.0%를 뉴질랜드에서 조달하고 있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임

- 키위의 경우 높은 관세율(45%)에도 불구하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입 시장 점유율(81.5%)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뉴질랜드 수입 5위 품목(HS 10단위 기준)을 차지

* 키위(HS081050) 수입점유율('14.1-9월, %) : 뉴질랜드 81.5, 칠레 15.2, 이탈리아 3.1, 프랑스 0.2

** 수입관세율 : 뉴질랜드(45%), 칠레(4.1%, 한·칠 FTA), 이탈리아·프랑스(33.7%, 한·EU FTA)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13년	'14.1-9월	비중	품목명	'13년	'14.1-9월	비중
휘발유(0-5%)	419.6	362.4	26.9	원목(0%)	347.1	262.7	22.5
경유(0-5%)	224.6	240.0	17.8	기타석유화학제품(2-8%)	169.5	257.1	22.0
승용차(0%)	245.5	202.1	15.0	낙농품(8-176%)	172.4	105.5	9.0
건설중장비(0-5%)	59.1	59.1	4.4	가축육류(3-72%)	117.4	98.1	8.4
합성수지(0-5%)	49.9	43.6	3.2	알루미늄괴및스크랩(0-3%)	117.9	63.0	5.4
제트유 및 등유(0-5%)	7.6	35.9	2.7	펄프(0%)	61.2	58.0	5.0
동조가공품(0-5%)	18.6	33.1	2.5	과실류(5-612%)	34.6	42.9	3.7
화물자동차(0-5%)	24.2	22.9	1.7	단백질류(8-20%)	37.0	29.0	2.5
기타어류(0%)	26.0	20.5	1.5	제재목(5%)	43.7	22.4	1.9
타이어(0-5%)	20.8	15.6	1.2	고철(0%)	21.6	20.4	1.7
소계		1,035.2	76.7	소계		959.1	82.1
총계		1,349.0	100.0	총계		1168.0	100.0

주 : MTI 4단위, 비중은 2014.1-9월 기준, 괄호 안은 관세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60위 투자 대상국으로 누적 기준으로 5억 달러 규모이며, 뉴질랜드의 對한국 투자는 제49위, 7천만 달러로 절대 규모는 크지 않음

【한·뉴질랜드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Q3	누적
한→뉴	21,544	38,213	15,801	13,480	14,781	48,835	23,255	13,378	78,457	494,841
뉴→한	168	471	57	340	30,718	359	458	495	824	71,295

주 : 신고금액 기준, 뉴질랜드→한국, 한국→뉴질랜드 누적투자는 2014.Q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농축수산물업 비중이 53.1%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이 31.9%를 차지

* 對뉴질랜드 업종별 투자 비중(누적, %) : 농축수산물업(53.1), 서비스업(31.9), 건설업(8.5), 제조업(6.5)

3 한·뉴질랜드 FTA 수출 및 협력분야

① 對뉴질랜드 수출 유망품목 (「부록 참고」)

- 뉴질랜드의 개방정책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기대되어 수출 확대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의 對뉴질랜드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중이며 뉴질랜드 평균 MFN 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평균 MFN 세율(WTO, '13년) : (전 품목)뉴질랜드 2.0%, 한국 13.3%, (농업)뉴질랜드 1.4%, 한국 52.7%
- 그러나 FTA가 발효중인 중국과 관세측면에서 동일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효과 기대

【참조 : 뉴질랜드 FTA 추진현황】

호주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83.1월 발효), 싱가포르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01.1월 발효), 태국 CEP('05.7월 발효), TPP('06.5월 발효, P4라고도 함)
중국 FTA('08.10월 발효), 호주·ASEAN FTA('10.1월 발효), 말레이시아 FTA('10.8월 발효), 홍콩 CEP('11.1월 발효), 대만 ECA('13.12월 발효)

- 뉴질랜드 시장은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00달러에 달해 소비력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FTA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기대

【뉴질랜드 경제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e	2015e
명목 GDP(십억 달러)	162.7	170.4	181.6	201.0	211.4
명목 1인당 국민소득(달러)	36,877	38,376	40,516	44,294	46,204
실질 GDP 성장률(%)	1.9	2.5	2.8	3.6	2.8
인구(백만 명)	4.4	4.4	4.5	4.5	4.6

자료: IMF(e : 추정치)

- 뉴질랜드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두 자릿수 이상 품목을 분석한 결과, 향후 對뉴질랜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유망품목은 기계류와 전자기기가 나타남

※ 수출유망품목 선정 기준

- ① 뉴질랜드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13년),
- ②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10~'13년),
- ③ 對한국 수입 50만 달러 이상('13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 (기계류) 머시닝센터(HS845710, 공작기계), 자주식 작업트럭(HS842720), 프론트엔드 셔블로더(HS842951) 등의 작업트럭은 최근 연평균 20-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 FTA 발효로 5%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확대 기대

- 작업트럭의 경우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미국 등이 뉴질랜드 내 점유율이 높아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시 우리 제품의 선점효과 기대

* 뉴질랜드는 일본, 미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TPP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중

- (기타) 영업용 냉장고·냉동고(HS841810), 젤라틴(HS350300), 알루미늄-아연합금(HS721061) 역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② 농식품 분야 협력 분야

- 청정지역인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분야 협력을 통한 선진농업 기술 습득 등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상

- 한·뉴질랜드 FTA를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투자 및 협력 사업 확대가 가능하고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 생산 기대

-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한·뉴질랜드 FTA, 중·뉴질랜드 FTA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뉴질랜드 투자 →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제품 생산 → 중국 14억 내수시장 공급’ 등 연계 수출 가능

【농식품 분야 협력 사례】

[제주도 키위 생산]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겨울 과일인 키위를 한국 소비자에게 일 년 내내 공급하기 위해 제주의 147개 농가(재배면적 100만㎡)에서 매년 2천 톤 정도의 골드키위 생산, 2013년까지 누적매출 910억 기록

- 기업형 영농이 발달한 뉴질랜드 제스프리사는 2004년부터 서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농가에서 골드키위 재배 시작, 까다로운 품질관리 및 높은 재배기술 등 노하우 전수
- 제스프리 뉴질랜드 키위의 생산철인 5~11월에만 한국에서 키위 유통시키고 12~4월부터 제주산 키위가 시장에 나오도록 해 한국 키위 농가와 상생 관계 유지
- 제스프리 코리아는 참다래를 생산하는 국내 농가와와 상생을 위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그린 키위는 재배하지 않고 골드키위만 생산

[뉴질랜드 산양분유] 일동 후디스는 뉴질랜드의 데어리고트사와의 협력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4개월 방목한 산양으로부터 얻은 신선한 원유로 분유/유아식을 현지에서 100% 직접 생산

- 선진적 낙농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와 협력을 통해 무공해, 무첨가물의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 국내 산양분유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자료 : 각종 언론기사 및 홈페이지 정리

③ CIT(컨버전스 IT)¹⁾, 인프라 분야 등

□ 뉴질랜드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 구축사업 및 다양한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의 높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협력이 기대됨

○ 뉴질랜드 ICT 시장규모는 227억 달러 규모²⁾로 IT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IT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뉴질랜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 가능

○ 또한 뉴질랜드는 ICT 기반의 네트워크, 교통망 구축 등 스마트시티 구현 산업이 활발하여 IT를 결합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

-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은 “Towards 2014 Smart Capital”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결된 도시(Connected City) 건설 비전을 제시

* 연결된 도시(Connected City) 구축은 인력·물자 이동 원활화를 통한 물리적(physical) 연결,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가상적(virtual) 연결, 사회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social) 연결을 뜻함

1) CIT(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convergence)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치를 창출함

2) 뉴질랜드 통계청(<http://www.stats.govt.nz/>)에서 실시한 뉴질랜드 ICT Supply Survey 결과 2012년 뉴질랜드 ICT 시장은 2010년 대비 2년 만에 17% 증가하여 227억 달러 규모(ICT 제품시장 101억 달러, ICT 서비스 시장 126억 달러)

【CIT 및 인프라 분야 협력 사례】

【교통카드 시스템】 (주)한국스마트카드(T-money)는 2008년 뉴질랜드 내 스마트카드 기반 결제시스템 구축 및 정산대행서비스 사업 수주

-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 대행을 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LG CNS, 현지 교통카드시스템 운영회사인 스내퍼(Snapper)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 웰링턴의 버스 400여대에서 시작하여 버스·택시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통가맹점에서도 결제 가능. 전체 카드 발급수는 38만장으로 인구 36만 명의 작은 도시인 웰링턴 인구와 맞먹는 수준
- 웰링턴에서 거래된 정산 데이터는 인천시 부평의 데이터센터에서 LG CNS 처리

【전동차 공급】 현대로템사는 뉴질랜드 웰링턴시정부(GWRL : Greater Wellington Rail Limited)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하여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두 차례 수주에 성공

- 현대로템사는 2007년 뉴질랜드 웰링턴시정부의 지하철 2호선 및 2개 지선에 운행 중인 노후 차량 96량을 교체하는 마탕이(바람) 프로젝트 참여하여 수주 성공, 2011년 납품을 완료(수주 금액 1.1억 달러 규모)
- 2007년 마탕이(바람) 프로젝트의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웰링턴시정부와의 전동차 신규 70량 공급 계약 체결 및 1기 납품차량 96량에 대한 개조사업 수주 성공(수주금액 1,300억원 규모, 2016년까지 차량 납품 계획)

자료 : 각종 언론기사 및 홈페이지 정리

4 결론 및 시사점

-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한·뉴질랜드 FTA를 통한 일부 공산품의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됨
- 뉴질랜드 시장은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00달러에 달해 소비력이 높은 시장이며,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6% 증가
-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투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됨. 특히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산업에서의 협력은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프리미엄 상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뉴질랜드에서 첨단기술 분야 및 다양한 I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ICT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IT, 스마트시티 구현, 게임 등의 서비스 수출, 기술 협력 분야에서 뉴질랜드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박지은 연구원 (6000-5342, jieunpark@kita.net)

부록

【對뉴질랜드 수출 유망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분류	HS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10-'13년)	대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경쟁국 점유율	MFN 세율
농식품	210690	조제식료품의 기타	318.9	14.1	2.2	0.7	호주(31.0)	2.0
	350300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 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 글루	16.1	32.3	9.2	57.0	호주(20.9)	2.5
화학 제품	391732	플라스틱 관·파이프 및 호스	49.9	18.1	3.3	6.6	호주(31.6)	2.5
	392010	플라스틱 관·쉬트·필름 등 -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	84.6	12.4	0.8	0.9	중국(23.8)	5.0
	392410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4.9	14.2	0.5	1.5	중국(54.2)	2.5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135.4	10.8	1.4	1.1	중국(28.7)	1.9
기계류 ·전자 기기	841810	냉장고·냉동고 (분리된 외부문을 갖춘것으로 한정)	49.8	16.2	6.0	12.1	태국(56.2)	5.0
	841869	기타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 - 기타	20.0	13.3	0.7	3.6	이탈리아(18.2)	5.0
	842240	기타의 포장기계	27.8	14.0	2.9	10.4	독일(20.3)	5.0
	842720	그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50.4	22.2	6.6	13.1	일본(17.8)	5.0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 (front-endshovelloader)	71.1	24.6	8.8	12.4	미국(22.8)	5.0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115.5	22.6	15.5	13.4	일본(71.2)	5.0
	842959	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와 셔블로더의 기타	35.5	16.4	23.6	66.6	일본(18.7)	5.0
	843041	자주식(自走式)의 기타 천공용 또는 시굴용 기계	11.2	18.3	0.6	5.1	미국(47.2)	3.3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centre)	10.6	37.3	1.2	11.1	일본(19.3)	5.0
	847710	사출 성형기	10.7	20.8	0.7	6.4	일본(28.0)	5.0
	847989	기타의 기기	68.8	14.2	1.4	2.1	독일(20.0)	5.0
	848180	탬·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 그 밖의 기기	107.2	10.0	1.0	1.0	중국(22.9)	2.5
	852721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14.9	18.9	0.8	5.2	태국(35.1)	5.0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 전자기기	48.6	23.6	1.5	3.1	미국(21.7)	5.0
	854370	기타의 전자기기	72.2	18.1	0.7	0.9	중국(40.6)	2.0
	854460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초과)	19.3	36.8	1.4	7.5	독일(69.3)	5.0
	90318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51.4	14.6	0.7	1.3	미국(36.3)	2.5
금속 제품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	13.4	17.6	7.6	57.2	일본(31.8)	2.5
직물	540720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스트립 또는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10.6	11.7	1.1	10.5	UAE(35.5)	2.5
수송 기기	870829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	38.3	17.6	1.6	4.2	일본(21.2)	5.0
	870899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	79.1	11.0	1.8	2.2	미국(20.5)	4.1

주 : 2013년 기준, 점유율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뉴질랜드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자료 : Global Trade Atlas